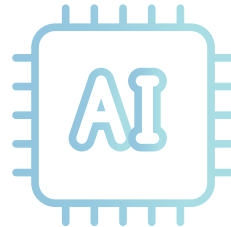


AI 시대의 '기자무싸', 기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한다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야심한 밤. 텔레그램이 올렸다. 묻고 또 물으며 몇 주를 기다린 취재원의 연락이었다.

— 곧 발표할 거니까, 지 기자가 먼저 쓰세요.

눈이 감기기 직전이었던만, 잠이 확 달아났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자 옆에서 자던 고양이가 짜증을 부리며 떠났다. 고단한 하루 끝에 피부를 지켜보겠다고 덮었던 마스크팩도 어디론가 날아갔다. 구르듯 책상으로 가 노트북 앞에 앉았다. 2초, 3초, 화면이 켜지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졌다. 첫 줄을 썼다.

[단독]국민연금 차기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내정

농쳐선 안 될 내 메인 출입처 기관장의 내정 기사였다. 이 기사만큼은 물 먹을 수 없다. 한 달이 넘게 취재에 매달린 기사이

기도 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데스크가 잠들었으면 안 되는데. 본문 첫 줄을 쓰며 전화기를 들었다. 부장, 부장, 부장. 전화 좀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급합니다.

기사가 나갔다. 무사히 출고됐음을 확인하고 ‘물 먹지 않았다’ ‘단독 건졌다’ 몰려드는 도파민 속에 잠시 빠져 있다가 침대로 가 기절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선 피폐함에 빠졌다. 지난밤에는 단독을 냈는데, 오늘은 쓸 것이 없다. 대체 무얼 쓰나. 머리를 쥐어뜯었다. 기자의 삶은 롤러코스터다. 어제 낸 단독은 오늘의 내 쓸모를 보증해주지 않는다. 나는, 기자는 매일 아침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싸움은 더 버겁다. AI를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수십 매의 소설토, 희곡도, 심지어 기사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적지 않은 직업과 노동자가 AI에게 대체 ‘당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글을 쓰는 노동자

인 기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머지않아 기자들을 대거 해고하고 AI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자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고민 해가며 10매짜리 기사를 쓰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면, AI는 몇 분도 걸리지 않는다. 정부기관의 보도자료를 다듬어 기사로 내거나, 녹취를 빠르게 풀어 정리하거나,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흐름을 기사로 전하는 일은 이미 AI가 인간 기자보다 빠르다. 심지어 지치거나, 숙취에 시달리다 양심 없는(?) 발제를 하거나, 선배에게 대들지도 않는다. 기체니까. 게다가 어쩌면 AI는 머지않아 대부분의 기자보다 글을 잘 쓰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챗GPT와 제미니가 발전할수록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AI보다 쓸모 있는 기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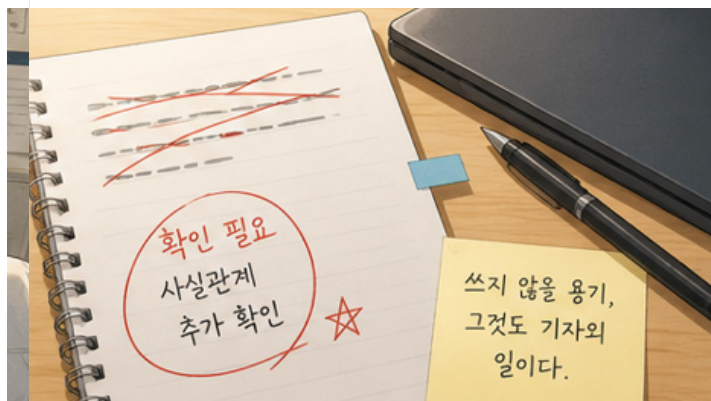
AI가 글쓰기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기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한다. AI보다 더 빠르게, 더 나은 문장을 쓰기 위한 싸움이 아닌, 기자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다.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정교해지는 AI와 싸울 무기는 분명 있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AI 기자도, 인간 기자도 모니터 속에서 글을 쓰지만 모든 기사가 모니터 속에서 나올수는 없다. 웹상에서 찾아 논문을 정리하거나 통계를 잘 풀어내는 것만으로는 언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사를 쓰기 어렵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AI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기사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담아둔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다. 현장에 나가 끊임없이 묻는 것은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기자의 일이다. 말하지 않으려는 취재원을 설득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취재원을 아슬아슬하게 다시 붙잡아 기어코 알려줘야 할 사실을 알아내 기사화하는 일을 AI는 할 수 없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 중 스쳐 지나가는 표정과 분위기를 읽고,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망설이는지 구분해 취재를 밀어붙이는 일은 모니터 속 AI 기자가 할 수 없다. 취재는 운 좋게 답을 듣고 받아 적는 과정이 아니다. 때로는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비아냥거리는 표정 앞에서 머쓱해지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묻는 일이다. 이렇게 지난한 현장에서 얻어낸 사실만이 기자와 언론사의 가치를 지켜내는 단독과 특종이 된다.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보만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아니다. 현장은 ‘기자로서’ 그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AI는기자협회 홈페이지를 뒤져 윤리강령을 해석하고, 그 틀에 형식적으로 맞는 기사를 쓸 수는 있다. 그러나 AI는 ‘현장의 윤리’를 모른다. 현장에서 배우는 취재윤리는 글로 정형화할 수 없는 것들이다. 현장의 윤리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일이다. 취재원을 위협하게 만들면서까지 단독을 욕심내서는 안 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기자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며 속도와 책임, 알 권리와 취재원 보호 사이의 경계를 배운다. 현장을 뛰는 기자가 몸으로 익히는 실무적 윤리다. 윤리강령을 검색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기자의 책임과 현장의 윤리가 담긴 기사를 쓸 수 없다.

기자가 AI 앞에서 온전히 무가치해지

는 순간은 AI가 더 좋은 문장을 쓸 때가 아니다. 기자가 더이상 현장으로 나가지 않을 때,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취재원의 표정과 말을 피부로 마주하지 않을 때다. 이미 정리된 정보를 모니터 앞에서 재가공하는 데 머문다면 기자는 AI와 같은 자리에서 경쟁하게 된다. 그 경쟁에서 인간 기자가 AI를 이길 수 있을까. 기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방법은 결국 다시, 또 다시 현장에 서는 일이다.

무가치한 아침은 매일 온다.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쥐어뜯는, 그럼에도 쓸만한 발제가 없는 아침이다. 어쩔 수 없다.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밖에. 발제 계획을 날리고 전화기를 든다.

“커피 한 잔하시죠. 아니, 뭐 꼭 할 말이 있어야 뵙겠습니까” 

이데일리 지역의 기자